

“악마를 사형시켜라” 흥분한 시민들

고종석 현장검증…“그 어린 것이 얼마나 무서웠을꼬” 탄식

“그 어린 것을….”

지난 1일 오전 나주시 영산포 일원에서 진행된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현장검증 현장.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 현장검증에서 범인 고종석(23)은 악마로 변해 저질렀던 지난 30일 당시의 범행 상황들을 담담하게 재연했다. 그는 시종일관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 얼굴을 끓 속였다.

또 경찰의 질문에는 “네. 아니요. 맞습니다” 등으로 짧게 답했다. 고종석이 피해자 A(7)양의 어머니를 만난 PC방에서 현장 검증이 시작됐다.

이후 80m 가량 떨어진 A양의 집으

로 향한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에서 잡들어 있던 아이를 이불째 납치하는 상황을 거리낌 없이 연출했다.

이어 그는 A양을 성폭행한 뒤 버리고 달아났던, 300m 거리의 영산강 한 다리 밑으로 향했다. 이 자리에서 당시 태풍이 몰아치고 비가 쏟아지던 날 새벽 A양에게 약 40분간 저질렀던 몸을 행동들을 5분 동안 차분하게 그려냈다. 잔인한 범행 수법에 곳곳에 서는 탄식이 터져나왔다.

최모(여·45)씨는 “잔인해도 이렇게 잔인할 수가 없다”며 “어리디 어린것이 깜깜하고 어두운 새벽에 이런

음침한 곳에서 10시간 동안 떨었을 것을 생각하니 내가 다 속이 터진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날 현장검증을 쭉 지켜보던 300여명의 주민 대부분은 고종석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현장검증을 마치자 “얼굴을 공개하라”고 고함을 지르며 분노를 드러냈다. 일부 시민들은 들고 있던 물건을 던지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박모(여·58)씨는 “저런 놈은 전자 발찌를 차고도 사람을 죽일 놈”이라며 “말도 안 되는 인권 타령하지 말고, 얼굴을 당장 만천하에 공개하고, 즉시 사형시켜라”고 고성을 질렀다.

또 일부 시민들은 골목길과 으슥한 장소가 많은 영산포 지역의 치안 대책이 평소에도 부족했었다고 질타했다.

두 딸의 아버지라고 밝힌 한 주민은 “범인이 초등학생을 끌고 지나간 골목길을 포함해 이 일대가 밤만 되면 항상 어두컴컴한데, CCTV가 단 한대도 없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며 “순찰차가 24시간 순찰을 하는데도, 10시간 동안 방치된 초등학생을 못 찾았다는 것 자체가 경찰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의 범인 고종석(가운데 검정색 모자)이 지난 1일 오전 나주시 영산포 피해자 A(7)양의 집에서 A양을 이불에 감싸 납치하는 장면을 재연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아동 음란물 상습 유포 60명 적발

광주경찰, 10대도 3명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일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아동 음란물을 상습적으로 유포한 김모(23)씨 등 60명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스마트폰을 통해 아동이나오는 음란동영상을 최소 3차례 이상 반복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5명은 성 관련 범죄 전력까지 있다. 10대도 3명이나 포함됐다. 60명 가운데는 20대가 가장 많은 22명으로 37%를 차지했으며, 이어 30대 19명

(32%), 40대 15명(25%), 10대 3명(5%), 50대 1명(1%) 순이었다.

경찰은 단순 유포자일 경우 불구속 입건하고, 아동이 노출되는 음란물을 직접 제작한 경우 구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 카페나 게시판에 구체적 범죄 실행을 예고하거나 유사 범행을 모의한 글에 대한 모니터링을

벌여 23건을 단속, 방송통신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했다. 광주경찰은 지난 7월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 아동 청소년을 성매수하고 음란 동영상과 음란 사진을 유포한 50명을 검거해 음란물 1200여개를 삭제하기도 했다.

국승인 사이버수사대장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잔혹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아동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개시하는 불법 성인 사이트에 대해 사이버 수사요원을 총동원해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지식경제부 공고 - 제2012-99호

2012년도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 공고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2012년도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목적

○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과 고급연구인력의 일자리 창출

2. 사업개요

○ 신규 지원규모 : 약 400명 이내

○ 지원대상 기업

-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기업

○ 지원조건

- 신청기간 중 미취업 고급연구인력(이공계 석·박사 및 경력기술인력)을 채용하고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인력으로 활용

○ 지원인원 : 기업별 최대 2명

○ 지원기간 : 최대 3년(1년 단위로 연차평가 후 결과에 따라 계속지원)

○ 지원금액

구 분	석사	박사	경력기술인력
기준연봉	2,700	3,300	3,600
정부지원액/연	1,350	1,650	1,800
(기준연봉 대비)	50%	50%	50%
3년간 지원총액	4,050	4,950	5,400

* 기준연봉 :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 기업은 수혜인력에게 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

○ 지원인력 자격요건

- 신청일 이후 지원기업에서 상근 근무 예정자

석·박사 분야

○ 이공계 분야 석·박사 학위 소지자 중, 각 차수별 신청시작일 기준 미취업자
* 비아오 분야의 경우에만 의·치학, 악학 학위자 신청가능
* 디자인 학위소지자 신청가능

경력기술인력 분야

○ 이공계 분야 학위소지자 중, 아래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로서, 각 차수별 신청시작일 기준 미취업자

* 학사 : 연구·기술분야 경력 10년

* 석사 : 연구·기술분야 경력 8년

* 박사 : 연구·기술분야 경력 5년

* 바이오 분야의 경우에만 의·치학, 악학 학위자 신청가능

* 디자인 학위소지자 신청가능

제외대상

- 채용인력이 동 사업으로 지원 받은 적이 있거나, 각 차수별 신청시작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신청일 현재 군 복무자는 또는 군 복무 예정이 확정된 자(병역대체 복무자 포함)

- 채용인력이 다른 정부지원사업의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지원기간 동안 다른 정부지원사업으로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접수 마감일 현재 신경기업, 대표자, 채용인력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 및 대표자가 신용불량 상태이거나 금융기관과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 한국인 국적의 아닌 자

우대대상 사항

○ 1차(신청기업 및 신청인력의 적격성 검토)

○ 2차(평가 항목 서면 평가)

- 평가 항목 및 평점 기준

현직 경찰이 화장실서 성폭행 시도

서부경찰, 강간 미수 입건… 해당경찰 “의도 없었다”

광주에서 현직 경찰관이 여성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광주서부경찰은 1일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여성의 골목길과 으슥한 장소가 많은 영산포 지역의 치안 대책이 평소에도 부족했었다고 질타했다.

두 딸의 아버지라고 밝힌 한 주민은 “범인이 초등학생을 끌고 지나간 골목길을 포함해 이 일대가 밤만 되면 항상 어두컴컴한데, CCTV가 단 한대도 없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라며 “순찰차가 24시간 순찰을 하는데도, 10시간 동안 방치된 초등학생을 못 찾았다는 것 자체가 경찰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사는 지난 1일 새벽 2시40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한 상가 건물 1층 화장실에서 B(여·39)씨를 성폭행하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사는 B씨가 비명을 지르자 곧장 도주하다가 B씨의 일행에게 붙잡혔다.

B씨는 “여자 화장실이 잠겨 남자 화장실에서 문을 잠그고 볼일을 보는데, 갑자기 한 남성이 들어와 입을 막

고 넘어뜨리고 옷을 벗기려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A경사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하던 중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우연히 마주친 여성이 소리를 지르자 당황해서 입을 막아 빙친 뒤 화장실을 뛰어나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양측의 주장이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4000만 원 수송 ‘007 가방’ 빼앗아 도주

여수경찰, 30대 2명 체포

여수경찰은 지난 1일 현금 수송 중인 금융기관 직원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최모(36)씨 등 2명을 긴급 체포했다.

최씨는 봉산동에서 오토바이를 버리고 대기 중인 고법 윤모(36)씨의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

이들은 가방에서 3995만 원을 꺼내 윤씨가 운행하는 승용차에 끌어내고 감췄다. 5만 원은 범행 후 밥값 등으로 썼다고 경찰은 전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최씨가 버린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동경로를 추적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CCTV 영상을 확보해 최씨 등을 검거했다.

/동북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kwangju.co.kr

통합진보 대리투표 의혹 1900명 조사

광주지검

어 주광주, 전남대병원, 각 학교 등 40여곳에 경선 투표 당일 각 사업장 소속 당원들의 근무실태를 확인하는 문문을 보냈다. 동일 IP에서 여러 차례 접속이 이뤄진 사업장에서 부정 투표가 이뤄졌는지 조사하는 차원에 서 있다.

검찰은 중복 IP 투표가 전국에 걸쳐 발생함에 따라 최근 IP 소지자들이 있는 13개 지방검찰청별로 관련 자료를 보내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지검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인 1900여명의 의심스럽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온라인 투표자 3만 7486명 가운데 1만 885명이 중복 IP를 통해 투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광주지검은 이와 관련해 금호타이

태풍피해 확인 집주인 ‘주가침입’ 고소

○ 집주인이 태풍 피해 확인을 위해 세입자 동의 없이 세입자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갔다며 고소당해 결과가 주목.

○ 2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광주의 한 원룸 세입자 A(여·24)씨가 집주인 B(65)씨를 주거침입으로 고소했는데, 집주인 B씨는 지난 31일 낮 12시께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원룸에서 A씨가 세들어 사는 집의 주인 쪽을 놀렸으나 대답이 없자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 미침 방에 있던 세입자 A씨가 찾김에 고소.</p